

우머니스트 신학과 앨리스 위커의 종교 및 공동체 의식

— 『자쥬빛』과 『나의 동반자의 신전』* —

홍성주**

| 목차 |

- | | |
|-------------------------------|---|
| 1. 서론 |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 |
| 2. 흑인 여성들의 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의미 | 4. 여성 동성애(lesbianism)의 수용:
분리주의를 넘어서 |
| 3.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 | 5. 결론 |

| 초록 |

우머니스트 신학은 흑인 신학이 인종주의에 지나치게 천착한 나머지 흑인공동체 내의 다른 억압적 요소들에 무관심하다는 비판과 함께 등장하였다. 앨리스 위커가 제시한 우머니스트의 정의는 우머니스트 신학의 토대가 되었으며, 위커가 쓴 작품들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앨리스 위커는 그녀의 작품 속에서 흑인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과 종교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흑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자긍심을 갖도록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흑인 여성들의 정신적인 유대를 넘어서 모든 흑인이 단합할 가능성을 탐구하였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유대와 전체성을 추구하였다. 위커의 영향을 받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흑인공동체의 생존과 지속을 가능케 했던 노력으로서 흑인 여성들의 문화와 경험을 바라보았다.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미국 내에서 흑인이면서 여성이라는 다층적 억압적 상황을 인식하고 흑인 여성들만의 고유한 종교적 경험을 토대로 백인 신화에서 벗어나 신을 대하는 방식을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으며, 흑인공동체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전체성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아프리카

* 이 논문은 2017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 netbird21@yongin.ac.kr

8 우머니스트 신학과 앨리스 워커의 종교 및 공동체 의식

중심주의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제거된 새로운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주장하였으며, 모든 분리주의의 제거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결속과 전체성 추구를 그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워커의 『자줏빛』과 『나의 동반자의 신전』에서 보이는 그녀의 종교적 인식과 공동체 의식이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의 중심 주장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공동체 의식, 억압, 우머니스트 신학, 앨리스 워커, 전체성, 흑인 여성

1. 서론

흑인 노예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단어는 독특한 함의를 갖는다. ‘흑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종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열등한 사람, 억압받는 자, 혹은 하위 주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흑인 대통령을 배출해 낸 현재에도 백인주류의, 여전히 인종차별적 사건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흑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차별화된 역사를 가진 흑인들의 경험과 문화는 특별히 독특할 수밖에 없으며, 종교 역시도 그들만의 특징적인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미첼(Mitchem)은 “신학이란 인간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사업적 활동”(Mitchem, 2002: 143)이라고 말한다. 신학 역시도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정치적 역사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신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지역과 상황, 경험에 따라 신을 마주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을 대하는 데 있어 단지 한 가지 방식만이 완전하고 옳은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가정이다.

기존의 서구신학이 흑인의 억압적 상황에 무관심하다는 모순에서 시작한 흑인 신학은 흑인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나온, 기존의 서구기독교적 해석을 해체하고 재해석한 신학이었다. 흑인신학자들은 해방과 화해의

문제들에 천착하였는데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를 흑인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여러 신학적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례로 기존 백인 신학에 대한 흑인 신학의 가장 과격했다고 생각되는 도전을 살펴보면 바로 흑인 예수론의 등장이다. 자유를 추구하며 해방 운동을 하던 흑인들에게는 흑인을 억압하는 백인 신은 구세주가 아니었다. 기독교적 신앙을 유지하면서 구세주를 발견하기 위해, 흑인 신학의 대표적 인물인 제임스 콘(James Cone)은 백인 기독교의 신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들만의 방법론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예수가 하고자 하였던 일은 모든 억압받은 자들을 해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와 모든 억압받은 자들을 동일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은 곳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예수 자신이 스스로 억압받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예수와 흑인들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흑인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흑인이라고 말함으로써 흑인 신학의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¹⁾.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에 의지하여 살아온 흑인들이었지만, 인종 차별이 만연한 미국에서 백인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인종 차별의 굴욕적 상황으로부터 흑인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종교적 신념이 필요하였다. 사실, 그리스도와 흑인과의 동일성, 그리스도가 흑인인가 하는 문제는 신앙상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것이다. 콘에게 있어 ‘흑인성(Blackness)’은 “기존의 〈어떤〉 사회에나 있는 억압(최악, 1987: 137)”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와 같다는 의미에서 흑인이라고 부름으로써, 미국의 흑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문화를 존중하게 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1) 더글러스(Douglas)는 그리스도를 흑인이라고 했던 콘의 주장은 예수가 “억압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피부색의 인간이 될 수 없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피부색의 인간임을 함축(Douglas, 1994: 83)”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을 사랑하고 해방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같은 인간인 흑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했던 노예주 백인들과 똑같은 피부색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된다는 것이다. 흑인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 흑인 억압에 반대하는 구세주로 명백히 밝히고 흑인들에게 흑인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해방신학으로서 흑인 신학은 미국 내 인종주의라는 억압구조에서 벗어나 흑인들의 진정한 해방과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백인과 흑인 모두의 평등과 참된 인간성이 실현된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흑인신학자들의 이론은 흑인공동체 내의 억압을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글러스는 흑인 예수의 등장이 그리스도가 인종주의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인종주의가 흑인공동체 내의 유일한 억압이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흑인 신학 이론은 공동체 내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억압의 해방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전체의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흑인 신학은 인종 차별 외에 성, 계급, 이성애주의(heterosexism) 등의 억압적 기제들로부터의 해방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Douglas, 1994: 85-86). 더욱이 당시 흑인 교회는 해방 운동을 함께 겪었던 흑인 여성들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 억압이나 차별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들은 흑인공동체 전체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흑인 남성들의 투쟁을 돕고자 하였다. 공통된 정치적 이해인 인종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흑인 여성들은 흑인 남성들과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공동체 내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흑인공동체의 분리라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흑인 전체의 해방을 목표로 했던 흑인 신학이 흑인공동체 내 여성들의 경험과 삶을 반영하지 않았던 일부 원인이었다.

전통적으로 흑인 여성들이 공동체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흑인 문화와 기독교적 문화는 교회 내에서조차 흑인 여성들을 지속해서 홀대하였

다. 공동체의 이해와 분리라는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마침내 흑인 여성들이 흑인 여성 신학, 즉 우머니스트 신학(womanist theology)을 등장시킨 이유이다. 우머니스트 신학의 출현에는 앨리스 워커(Alice Walker)의 글이 중심에 있었다. 윌리스(Willis)는 워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머니스트 신학의 어머니(Willis, 2006: 50)”가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 어머니들의 정원을 찾아서: 우머니스트 담론』(*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Womanist Prose*)에서 워커가 내린 우머니스트에 대한 정의가 흑인 여성 신학자들을 포함하여 억압적 상황에 놓여있던 모든 흑인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워커는 우머니스트라는 말을 남부 흑인 여성들이 사용했던 ‘우머니쉬(womanish)’(Walker, 1983: xi)라는 표현에서 착안해 만들었는데, 이 용어는 보통의 여성스러움(femininity)이라는 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단순히 말하면 열악한 위치에 있는 흑인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대담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행동방식을 일컫는 말이다²⁾.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에 저항하는 행위나 고통을 겪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 등도 우머니쉬한 행위이다. 우머니스트라는 용어가 현재는 워커가 정의했던 의미를 넘어서서 흑인 여권주의자 이상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우머니스트란 “흑인성(Blackness)과 여성성(womanhood) 두 가지 모두에게 적대적인 사회에서 흑인이면서 여성(Douglas and Sanders, 1995: 9)”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관계된 복잡함, 즉 다층적 억압에 저항하며 살아온 흑인 여성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다. 종교적 학문 혹은 신학에서 우머니스트는 성경, 교회, 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며, 이 역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남아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흑인 여성들의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다(Douglas, 1994: 129).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이론이 그 전의 모든 주장과 완벽히 결별을 고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듯이, 우머니스트 신학 역시도 흑인 신학의 민족적

2) 우머니스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성주. 2003. “우머니즘과 그 전망.” 『현대영어영문학』. 제47권 3호. 67-81쪽 참조.

공동체 의식이나 구세주의 흑인 개념 등을 일정 부분 공유하며 시작했다. 흑인 신학이 그러하였듯이 우머니스트 신학도 합의되고 제도화된 교회법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상황으로부터 나온 신학이다. 우머니스트 신학은 흑인 신학에서 정립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체 공동체의 관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신학을 모색하였다. 또한, 점차 그 저변을 확장해 유색인들에 대한 다양한 억압에도 관여하며 모든 유색인종의 결합을 꾀하고자 하였다. 흑인 여성 신학자들에게 있어 우머니스트 신학은 단순히 신을 대하는 종교적 방법론 이상의 확장성을 갖는데 그들이 기존 흑인 신학뿐 아니라 여성 신학, 백인 페미니즘, 심지어 지나치게 분리주의로 치달는다는 의미에서 흑인 페미니즘에도 도전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우머니스트 신학은 워커의 우머니스트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워커의 모든 정의를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론이 정립되어 가면서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워커의 정의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워커의 공동체에 대한 신념과 종교적 견해를 얼마만큼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워커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종교와 흑인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우머니스트 신학 이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또한, 우머니스트 신학이 흑인공동체가 흑인임을 긍정하고 공동체 모두의 전체성(wholeness)³⁾ 회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제시하

3) ‘온전함’, 혹은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전체성은 삶 자체가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흑인 여성 문학과 신학에서 전체성은 모든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 육체적, 정신적 재생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더글러스는 전체성이란 억압의 상처를 극복한 개인의 승리를 함축하지만, 더 나아가 개인은 공동체 전체의 전체성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Douglas, 1995: 68), 전체성이 “결합을 상징하는 자아와 타자와의 감정적 연결선(홍성주, 2003: 75)”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워커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이러한 전체성의 개념을 흑인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과 정신적 재생, 그리고 이를 위한 헌신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고 있는 것들이 워커의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자줏빛』(*The Color Purple*)과 『나의 동반자의 신전』(*The Temple of My Familiar*)에서 워커는 인종주의와 억압의 문제를 폭넓은 시각에서 보며 종교의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자줏빛』에 대한 연구는 워커의 우머니즘(womanism)을 논하면서 주인공 실리(Celie)가 모든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전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분석되거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우머니스트 인물들 중심으로 주로 분석되었다. 종교적 분석도 범신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거나 흑인 신학의 전체적인 특성을 논할 때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워커가 『자줏빛』의 10주년 기념 판의 서문에서 이 작품은 “내가 성인이 되어 상당한 시간을 쏟았던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가는 여정을 탐구하는 신학적인 작업(Walker, 1992: 1)”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종교의 문제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우머니스트 신학의 중심적 사고들이 이 작품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도 우머니스트 신학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주된 이유이다. 후속작인 『나의 동반자의 신전』은 『자줏빛』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워커의 정의로부터 시작된 우머니스트 신학의 관점과 함께 두 작품 속 워커의 종교적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흑인 신학이 그러하였듯이 우머니스트 신학의 바탕도 공동체이다. 그러나 우머니스트 신학은 인종 차별의 제거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흑인 여성들의 모든 억압이 제거된 후, 하나의 공동체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전체성의 추구를 그 목표로 하였다. 워커가 초기와 중기 작품들에서 추구해 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머니스트 신학의 관점을 끌어들이다면 워커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공동체에 관련된 신념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머니스트 신학의 입장과 함께 워커의 작품을 읽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우머니스트 신학과 워커가 흑인공동체가 경험해왔던 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동체의 정신적 자유를 위해 주장하는 흑인 중심적 사고와 아프리카 뿌리에 대한 열망과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전체성 혹은 모든 사람의 전체성 추구를 위해 여성 동성애의 수용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흑인 여성들의 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의미

미국 흑인들의 종교는 “대체로 공동체적이고, 실천적/저항적이고, 경험적인(김명주, 2010: 176)” 특징을 갖고 있다. 그들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 흑인들의 종교는 인종주의로부터 공동체 해방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저항과 실천 그리고 지배적인 서구 백인 신학 전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새롭게 해석한 신학 이론 등의 특징을 갖는다. 늘 모욕당하고 이용당하기만 했던 노예 흑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주어졌던 백인의 종교, 즉 기독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해독제로 변화되었고 흑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간신히 그들의 힘든 삶을 이어 왔다(Walker, 1983: 16). 워커는 흑인들에게 주어졌던 백인의 종교를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곧 부모님들이 집착했던 종교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비록 종교의 형태로 그들부모님들에게 백인의 완화제가 강제로 주입되긴 하였지만, 그들은 즉시 그것을 단순하고 숭고한 어떤 것으로 변화시켰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백인이 아닌 신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마음에 그릴 수 없으며 그것은 상당히 잔인한 일이지만, 그들의 삶은 신이 반드시 피부색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백인 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Walker, 1983: 17-18).

흑인 신학이 대두되고 흑인 교회에 대한 여러 논의가 등장하기 전에도

흑인들의 종교는 백인 기독교 신앙과는 분명 다른, 흑인들만의 고유한 것이었다. “종교적 경험은 종교를 선행(김명주, 2010: 172)”한다는 말은 똑같은 종교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집단의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위커도 흑인들의 종교가 백인들의 기독교에서 온 것이지만 흑인 자신들만의 고유한 경험과 삶을 견뎌내어야 하는 고통 속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종교를 변화시켰음을 깨닫게 된다. 신이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흑인들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기존 기독교로는 예수가 흑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리스도가 흑인들에게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미래를 바랄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위커는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커는 작품 속에서 흑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흑인 기독교의 의미를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이중 삼중의 억압을 견뎌낸 흑인 여성들을 통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우머니스트 신학이 “예수의 가르침(Christian Doctrine)을 흑인 여성들의 삶과 함께(Mitchem, 2002: 62)” 이해하고자 하며 흑인 여성들의 고유한 삶의 경험을 신학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위커가 『자줏빛』에서 셔그(Shug)와 실리의 대화를 통해 제시하는 하느님은 더글러스가 흑인 여성들에게 그리스도란 “가난, 흑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상황에서 나오는 “매일의 투쟁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Douglas, 1994: 116)”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과 일치한다. 실리가 셔그에게 신은 귀머거리라고 불평하면서도, “신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 비록 그가 거기에 없다는 걸 알아도 신 없이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 이야(Walker, 1992: 164)”라고 고백하는 것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흑인 여성들이 하느님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기도가 이루어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실리가 신에게 편지를 쓰듯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언젠가’라는 희망을 품게 해 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더글러스는 그 어떤 상징(symbol)이나 아이콘(icon)도 그리스도의 실재나 의미를 모두 보여주기는 어려우며, 그 상징이나 아이콘들도 공동체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하여 논하며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은 흑인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전체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남성이거나 백인/흑인 같은 그리스도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그가 했던 행동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통합과 자유를 위한 행위를 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한다. 특히 우머니스트 신학은 가장 가난한 흑인 여성들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학은 ‘이들 가운데 한사람(one of these)’⁴⁾ 즉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에게 책임감을 느껴야만 하므로 우머니스트 신학의 흑인 그리스도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존과 전체성을 위해 헌신한다(Douglas, 1994: 108-109).

워커가 『자줏빛』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실리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녀의 생존과 전체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그를 통해 제시하는 종교는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독교의 상징과 아이콘을 버리고 진실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리는 백인이 흑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듯이 백인 모습의 하느님이 자신의 삶을 방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서그는 “신은 너에게 생명과 건강과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훌륭한 여인을 주었어”라고 하며, 서그 자신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을 신경 쓰고 있어(Walker, 1992: 164)”라고 말한다. 자유롭게 신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지 않은 서그의 뜻밖의 고백은 자신의 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서그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을 느낀다고 말한다. 실리의 말처럼 “미스터__의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채로 힘들어하던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

4)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Matthew, 25:40)

(Walker, 1992: 165)”이 있는 교회에서 신을 느끼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불행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있다. 셔그는 실리가 말하는 백인 하느님의 초상, 즉 나이 많은 백인이면서 흰 수염과 푸른빛 도는 회색 눈을 가진 외모에 대해 언급하며, 성경은 하느님이 쓰신 것이고 백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실리를 일깨워 준다.

내가 믿는 것은, 신은 네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안에 있다는 거야. 너는 신과 함께 세상에 왔지. 그렇지만 단지 자신 안에서 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신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때로 신은 심지어 네가 찾지 않아도 혹은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할 때도 스스로 나타나기도 한단다.

... 신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것이지(Walker, 1992: 166-167).

워커의 종교에 대해 논의할 때 많이 인용되는 이 부분에서 셔그는 하느님을 ‘그것(it)’이라고 말하지만 셔그가 하느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백인들의 교리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는 이제 신을 사랑하고 신이 사랑 하는 모든 것에, 심지어 흑인들에게도 깃들 수 있다. 셔그가 “하느님은 모든 것” “존재해 왔고 존재할 모든 것(Walker, 1992: 167)”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신의 손길이 있다는 의미이다. 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 연결되어 있고, 신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서도 신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셔그는 신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조차 사랑한다(Walker, 1992: 167)”라고 말한다. 윌리스는 “우머니스트 신학의 토대는 셔그와 실리의 신학(Wills, 2006: 38)”이라고 지적한다. 우머니스트 신학은 그 시작이 정통 기독교적 교리가 아니라 “문화”이며 “흑인 여성과 관계된 신(Willis, 2006: 36)”이다. 따라서 우머니스트 신학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중층적 편견들에 의해 가려진, 교육받지 못하고, 그저 억척

같이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남기 위해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야만 했던 흑인 여성들의 경험과 믿음에서 시작하는 신학이다. 다층적 억압에 시달리던 흑인 여성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의지했던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신학이며 그들만의 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워커는 흑인과 유색인종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백인들이 만든 신화 속의 하느님을 비난한다. 워커는 『나의 동반자의 신전』에서 실리의 딸인 올리비아(Olivia)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아버지 사무엘도 선교사였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그의 신앙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죠; 선지자이며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정복과 지배의 종교로서 기독교에 대해서요(Walker, 1989: 146).

우머니스트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워커가 부정하는 것은 백인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백인들의 신화이며 종교이다. “영적인 가이드이자 종교적인 창녀”인 백인들은 “신에 대한 경험의 가장 문학적인 형태”까지도 오염시켜서, 농장이 잘 돌아가도록 “성경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만드는(Walker, 1989: 147)” 사람들이다. 워커에게 백인 기독교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이용했으며, 신에 대한 경험의 가장 문학적인 형태인 성경⁵⁾까지도 오염시

5)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미국의 흑인들은 과거 백인주인이 세워준 교회에서 신에게 자신들의 비참한 삶의 구원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적 위치에 있었다. 인간을 노예화하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노예제도 옹호자들은 노예제를 존속시키기 위해 법적, 경제적, 정치적 장치들과 함께 종교적인 정당화를 부여하였다. 대부분 교회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타고난 권리를 가지며, 신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만일 흑인들이 인간이라면 그들의 자유와 권리는 박탈될 수 없었으므로, 노예인 흑인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지적, 문화적, 도덕적 속성을 지닐 가능성이 배제되었으며 동물과 인간의 중간 격의 새로운 종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생각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에 의하면, 노아의 아들이자 가나안의 조상인 함(Ham)은 흑인의 선

킨 사람들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백인들의 아프리카 식민화를 직접 목격한 사무엘은 백인들의 그 잔인함과 이기심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믿어왔던 유럽식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영적 가르침에 관한 흔들림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오고 공부해 왔으며 선교해 왔던 백인이 정립해 놓은 기존 기독교 교리에 관한 흔들림이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며 네티(Nettie)는 사무엘과 자신이 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실리에게 고백한다. 네티는 “신이 무엇과 닮았느냐에 얽매이지 않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라고 말하며 그 어떤 우상도 없는 “각자의 영혼이 신을 직접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교회(Walker, 1992: 218)”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다. 위커는 백인 예수라는 우상을 언급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이나 종교조차도 신화에 종속되고 있음을, 즉 신화적인 것이 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위커는 테이트(Tate)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에서 신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수염을 기른 영국 남자로서의 신의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제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백인 남자인 신의 이미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깊게 새겨져 있기에 우리가 부정할 때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말하며, 위커는 그 억압적인 이미지의 자리에 모든 것을 두고 싶다고 언급하였다(Tate, 1984: 178-179). 그러나 위커의 목표는 단순히 푸른 눈의 신의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신의 이미지를 해체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 땅의 모두가 신의 창조물임을 강조한다. 위커의 의도는 반목과 차별의 지속은 결국 파멸을 가져올 것이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해와 모든 생명

조이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 이야기하였으나 다른 두 아들은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주었고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술에서 깬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종이 되리라” 하였고, 또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예언하였다. 백인들은 이 내용을 내세우며 흑인이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리화하였다.

에 대한 존엄성임을 글을 읽는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다. 『나의 동반자의 신전』에 나오는 “셔그의 복음서(The Gospel According to Shug)”에는 이러한 워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인종주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니,” “낮선 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니,” “우주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니,” “모든 행동이 평화를 위한 기도인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니,” “동물들과 식물들의 모든 색깔을 사랑하듯 모든 색깔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니(Walker 1989: 287-289)” 등의 글들은 종교조차도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위해 이용하고 합리화하는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워커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동반자의 신전』에서 리씨(Lissie)는 “성경에는 세상에 평화가 와서 사자와 양이 함께 눕게 되는 미래의 어느 때에 대한 구절이 어딘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Walker, 1989: 356)”라고 말한다.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모든 억압과 차별이 제거된 진정한 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처럼, 워커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종교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구원과 화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워커는 이 땅의 모두가 신의 창조물임을 강조하고, 백인과 흑인/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신, 그리고 모든 억압과 모든 우상이 제거된 진정한 종교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3.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

아프리카 중심적 관심은 흑인 미국인들의 자존감과 문화적 자긍심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화적 뿌리, 특히 아프리카적 뿌리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아프리카 중심적 생각은 흑인 미국인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의 존속력을 입증하게 하며, 동시에 조상들의 과거를 긍정하게 한다. 이것은 유럽 중심적 의식으로부터 흑인 미국인들을 해

방하고, 새로운 흑인들 고유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해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백인들의 문화적 종속으로부터의 흑인들의 독립을 추구하는데, 흑인들의 전통과 역사를 직시함으로써 백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를 인식하고자 한다. 흑인의 역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함에 따라, 흑인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온 사회적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가 풍부하며 고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습관화된 백인의 의식으로부터 새로운 흑인 미국인으로의, 아프리카 중심적 사고와 행동으로의 흑인들의 전환을 담고 있다.”(Williams, 1995: 46) 아프리카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통하여 흑인들은 권위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인종주의를 기저에 깔고 있는 백인들의 신화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흑인의 역사와 문화를 흑인들의 삶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 있어 우머니스트들과 그 출발을 같이한다. 그러나 우머니스트들은 아프리카 중심이론이 가부장적 시각을 고수하고 미국 흑인 여성의 특성과 가치를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심주의의 남성학자들은 아프리카의 유산을 낭만화하고, 심지어 아프리카계 작가들이 작품에서 묘사한 아프리카 전통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예로 윌리엄스는 『무너져 내리다』(Things Fall Apart)에서 아체베(Chinua Achebe)가 그리는 식민화 이전의 전통적 아프리카 사회, 즉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언급한다.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아프리카의 전통 유산과 역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아프리카적인 모든 것을 옹호하고 성차별주의와 남성 지배적 요소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중심주의의 남성 경험에 대한 강조와 성차별을 무시하는 태도는 미국 사회에서의 남성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미국 사회에서 여성과 흑인들을 더욱 억압받게 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Williams, 1995:

52-53). 커밍스(Cummings)는 다음과 같이 흑인 남성들이 주장했던 아프리카 중심주의와 우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비교 설명한다.

우머니즘과 아프리카 중심주의의 통합 점은 그 둘 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과 문화적 풍요로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머니스트들이 여성의 시각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 전체를 반영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중심주의자들은 유럽 중심적이고 남성적 시각과 관계된 가부장적 면모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중심주의자들은 미국 문화의 조직 속에 아프리카 중심적 시각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아프리카 뿌리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험을 연계시키는 반면, 우머니스트는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의 시각이 반드시 아프리카 중심주의 내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 중심주의자들은 우머니스트가 아니지만, 우머니스트들은 아프리카 중심주의적이다. 우머니스트들은 흑인공동체와 포괄적 접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전체의 요구를 규정하고 알리기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Cummings, 1995: 59).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아프리카 중심주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범주에 여성은 배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종주의나 성차별, 계급주의 같은 다층적 억압의 체계에 저항하기 위해 좀 더 포괄적인 이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머니스트 신학에서 주장하는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흑인들이 아프리카 문화와 역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 시각을 갖는다. 그들은 흑인 문화의 모든 것, 아프리카적 전통의 모든 것이 긍정적인 문화이며 역사라는 태도를 비판한다. 워커 역시 작품 속에서 아프리카가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였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인들의 성차별적인 전통이나 남성중심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 워커는 『자줏빛』에서 네티를 통해 아프리카가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인식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에티오피아인은 모두 유색인들이었어.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어휘에 주의를 기울이면 너무 분명한 것인데, 그 생각은 결코 내게 떠오르지 않았었어. 우릴 속아 넘어가게 한 건 성경에 있는 그림들이야. 어휘를 설명하는 그림들. 그 사람들은 모두 백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백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진짜 피부가 흰 백인은 어딘가 다른 곳에 살았었어.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양모 같은 머리털을 가졌었다고 말하는 이유야(Walker, 1992: 113).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아들이 세운 나라이다. 워커는 미국 내 흑인들이 아프리카적 뿌리를 찾고 그들의 문화를 재발견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고유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를 전복시키고 그 신화에 의해 감추어졌던 문화를 복원시키려 한다. 네티는 실리에게 자신이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하며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들보다 뛰어난 문명을 이룩하였음에도 수 세기 동안 고난의 시간을 거쳤다(Walker, 1992: 117)”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백인들에 의한 것이었다. 워커의 백인 제국주의 비판은 『나의 동반자의 신전』에서도 계속된다. 엔징하(Nzingha)는 파리에서 유학했던 시절에 어떤 교수가 아프리카가 현재에도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는 강의를 했었다고 이복언니 패니(Fanny)에게 말한다. 엔징하는 교수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라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아프리카가 이바지한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주로 ‘후진성’에 대한 것이며, 수 세기에 걸친 백인들의 식민지 정책과 압박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고 말한다(Walker, 1989: 266). 또한, 워커는 성인이 된 올리비아의 경험을 통해 한때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아프리카가 백인들의 아프리카 대륙 탈취계획 하에 무너져 갔으며 백인들에게 아프리카인들은 대량학살로 없애버려야 할 부담스러운 존재였다(Walker, 1989: 151)고 고발한다.

워커가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 백인들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그로부터 발생했던 흑인 전통과 문화의 말살 그리고 역사의 왜곡 등을 지적하지만,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무조건 숭배를 하거나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자줏빛』에서 올린카(Olinka) 부족인 타쉬(Tashi)의 부모는 네티를 찾아와 여자아이인 타쉬를 가르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타쉬의 아버지는 “남자아이만 가르치나요(Walker, 1992: 132)?”라는 네티의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올린카 부족 사람들은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네티의 말에 올리비아는 “그들은 유색인들은 교육받길 원하지 않는 고향의 백인들과 같군요(Walker, 1992: 133)”라고 답한다. 올린카인들에게 여자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주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올린카인들은 “백인들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하더라도 그들 고유의 생활방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에 얼굴에 상처를 내어 흉터를 만들거나 “여성 성인식(Walker, 1992: 202)” 즉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기를 절제하는 할례를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행한다. 『나의 동반자의 신전』에서는 엔징하가 올린카 부족의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남자들과 함께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으나 독립 후 소외당한 자신의 어머니의 불행한 삶에 대해 “국민”이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지만 ‘정부’는 단지 남자들만 포함(Walker, 1989: 258)”한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인권운동 이후 교회 내에서조차 흑인 남성들에게 철저히 소외되었던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흑인 남성들을 비판했던 것과 유사하다. 워커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흑인의 문화적 유산을 가치 있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 되어있는 남성 중심 문화를 비판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공동체의 전체성 확립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흑인공동체 자체를 분열시키는 차별과 억압을 배격하는 것이다.

4. 여성 동성애(lesbianism)의 수용: 분리주의를 넘어서

더글러스는 흑인 교회와 흑인 여성들이 소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게이나 레즈비언들에게 유독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흑인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신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며 가족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음을 비판하며, 더글러스는 우머니스트 신학자들 또한 일찍이 위커가 우머니스트의 정의를 “성적으로든 성적이 아니든 다른 여성들을 사랑하는 여성(Walker, 1983: xi)”이라고 말했던 것을 애써 무시해왔다고 지적한다(Douglas, 1994: 99-100). 윌리스 역시 “위커의 우머니스트 정의”는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교리에 정반대(Willis, 2006: 17)”의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흑인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충분히 논의해오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 신학자에게 위커의 정의는 이단적 개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글러스는 샌더스(Cheryl Sanders)조차도 레즈비언에 대한 위커의 명백한 긍정에 반대하고 기독교의 윤리적 원리들과 위커의 견해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하였음을 비판하며, 콜린스(Collins)가 인종주의와 성, 계급이라는 억압을 경험하며 살아온 “흑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인종적, 성적 억압을 인식하면서도 이성애 특권의 혜택을 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든다(Collins, 1991: 194; Douglas, 1994: 101 재인용)”라고 말했음에 주목한다. 그녀는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이성애주의도 다른 억압적 기제들의 일부이며 추방되어야 마땅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이 받는 억압을 계속해서 영속화 시킨다면 그것은 전체성에 대한 우머니스트들의 비전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Douglas, 1994: 100-102). 위커 역시 『우리 어머니들의 정원을 찾아서: 우머니스트 담론』에서 “검둥이(niggers)와 레즈비언의 원초적 범죄는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흑인 레즈비언이 혹독하게 대접을 받을 때 우리가 작가라면 글로, 작가가 아니라면 말로 “우리는 모

두 레즈비언이다(Walker, 1983: 289)”라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이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Walker, 1983: 289)” 것이라고 말하는 것의 극단적인 형태일 뿐이다. 워커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존중받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사회학자 라마자노글루(Caroline Ramazanoglu)는 전 세계 여성들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페미니즘의 정치학은 성적 정체성이 어떻든지, 혹은 그 정체성이 어디에 도달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에게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마자노글루, 1997: 257)”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나 워커에게도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억압의 사회적 근거를 종식 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선택에 대한 존중은 분리주의를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워커에게 있어 레즈비언적 관계는 성에 대한 선택의 자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컨대, 『자줏빛』에서 실리는 아버지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결혼한 사람과도 억압적인 성관계로 인해 성적 즐거움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한 실리에게 셔그와의 여성 동성애 관계는 실리 자신도 성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셔그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실리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 친밀감은 학대와 폭력의 시간 동안 억눌려져 왔던 고통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게 해 준다(Byrd, 1990: 375). 실리와 셔그의 동성애적 사랑은 실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고 전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던 “성적으로든 성적이 아니든 다른 여성들을 사랑하는 여성”에서 워커에게 ‘다른 여성들을 사랑하는’이란 말은 여성들 간의 정신적인 유대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워커는 여성들끼리의 유대감을 중시하고 여성들의 유대감이 저항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실리의 전체

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서그와의 레즈비언적인 관계나, 포기하지 않고 실리에게 편지를 쓰고 마침내 실리에게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갈 용기를 주었던 네티의 자매애 등은 모두 큰 틀 안에서 여성들의 유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의 동반자의 신전』에서 여성들끼리 힘을 합쳐 아이들을 양육해 내거나, 패니가 남편의 애인이었던 여자를 마사지를 통해 정신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등도 자매애의 한 모습이다. 사실상 자매애, 즉 여성 간의 유대는 페미니즘에서 여성 해방을 위해 여성들의 투쟁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였다. 마찬가지로 우머니스트 신학자들 역시 흑인 여성들이 전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흑인 여성들의 유대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억압받는 여성들의 결속을 주장하였다. 더글러스도 소외시키는 모든 억압구조에 대한 도전을 언급하며 유색인 여성들과의 연대를 역설한 바 있는데, 그녀는 모든 억압이 제거된 흑인공동체의 전체성 획득이라는 우머니스트의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억압적 상황이 제거된 세계 공동체를 향해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였다(Douglas, 1994: 102-103). 우머니스트 학자들은 억압받는 다른 공동체, 특히 제3 세계 유색인 여성들과 연대 그리고 탄압받는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인식하고 모든 분리주의를 거부하며 “모든 여성이, 사실은 모든 인간이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세계를 추구(Douglas, 1994: 104)”한다. 위커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동성애까지 수용함으로써 모든 분리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사람의 조화로운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커는 『자줏빛』에서 실리의 주변 남자들의 변화와 『나의 동반자의 신전』에서는 갈등을 빚던 패니 주변 사람들의 성장과 화해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전체성 추구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위커가 두 작품 속에서 흑인공동체의 특수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흑인공동체의 전체성에 대한 추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범주를 전인적인 인간의 전체성 문제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사랑하듯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정상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니,” “삶의 다양성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니(Walker, 1989: 289)” 같은 작품 속 여러 언급을 통해 워커는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존중을 역설하고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5. 결론

흑인 신학의 아버지 제임스 콘은 우머니스트 신학을 언급하며 흑인 신학이 인종과 해방에 대해 강조했다면 우머니스트 신학은 그 범위를 확장해 성, 계급, 성차별 그리고 삶의 생존에 이르기까지 그 신학적 담론을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Mitchem, 2002: 96). 주지하다시피 흑인 신학이나 여성 신학 모두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하고는 있으나 두 신학 모두 흑인/유색인종 여성들의 삶에 무관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 두 신학의 유색인종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은 우머니스트 신학의 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흑인들의 생존과 흑인공동체의 지속을 가능케 해 왔던 삶의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한 노력으로서 흑인 여성들의 문화와 역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흑인 여성들의 삶을 이어가게 했던 흑인 여성들만의 고유한 종교적 경험과 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다. 우머니스트 신학은 그 시작을 흑인 여성들의 문화와 역사적 경험에 두지만, 모든 분리주의를 거부하고 보편주의와 다인종적 결합을 추구하며 남녀와 흑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재생을 의미하는 전체성을 그 목표로 하였다. 이는 워커가 작품 속에서 꾸준히 제시해온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논의해 온 것처럼 우머니스트 신학은 워커의 우머니스트에 관한 정의에 상당한 빛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머니스트 신학자들 전체가 워커의 우머니스트에 대한 정의들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워커의 신에

대한 개념과 신을 대하는 방식 및 동성애에 대한 관점에는 이견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위커의 우머니스트 정의에 전체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보이는 신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커의 작품에 나타나는 흑인 여성의 종교와 아프리카 중심주의 그리고 여성 동성애의 수용 등을 위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흑인 신학과 마찬가지로 우머니스트 신학 역시 흑인공동체를 위한 흑인 그리스도를 긍정한다. 그리스도를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세주가 인종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부색만이 흑인 여성들이 겪는 유일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의 역사적, 지리학적 고려는 예수가 백인보다는 유색인종에 더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그리는 흑인 구세주는 단순히 피부색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흑인 여성들이 겪는 경험 속에서, 흑인의 생명과 전체성을 위해 노력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맬컴 X(Malcolm X)에서 시작해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했던 흑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의 그리스도는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인종 차별, 성차별, 계급과 이성애주의 같은 모든 억압에 반대한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하는 행위가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현존할 수 있다는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의 입장은 위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입장과 같다.

위커는 “흑인 남부 작가가 천부적 권리로 물려받은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Walker, 1983: 17)”라고 말한다. 그녀의 두 작품을 관통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공동체의 전체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 위커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흑인 여성 고유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과 종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흑인 여성들이 스스로 문화와 역사에 자긍심을 갖도록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제시하는 것도 결국은 공동체의 전체성이 그 전제이다. 그

들은 흑인 여성들의 정신적 유대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삶과 경험에 집중하고, 모든 흑인이 더 나아가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이 단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워커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의 여성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위한 노력은 결국 모든 종류의 분리주의로부터의 해방과 모든 인간의 유대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들의 인식이다. 우머니스트 신학과 워커가 강조하는 흑인 여성의 가치와 경험은 흑인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적 흐름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억눌린 여성적인 가치들, 즉 억압받은 사람들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우월하게 여겨져 온 서구/남성적인 가치를 답습하지 않고, 억눌린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전체성을 향한 출발점임을 그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다. 억눌려온 것들의 가치가 환하게 빛을 발함으로 인해 억압적인 체제는 그 빛을 잃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워커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중심 일 것이다.

Ⅰ 참고문헌 Ⅰ

- 김명주. 2010. “미국 흑인 종교적 상상력의 세 가지 특징: 말콤 X, 제임스 콘, 앨리스 워커를 중심으로.” 『미국학연구』, 제42권 3호, 171-201쪽.
- 라마자노글루, 캐롤린. 1997.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선(역). 서울: 문예출판사.
- 뵈삭, 알란 A. 1987.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김민수(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홍성주. 2003. “우머니즘과 그 전망.” 『현대영어영문학』, 제47권 3호, 67-81쪽.
- Byrd, Rudolph P. 1990. “Spirituality in the Novels of Alice Walker: Models, Healing, and Transformation, or When the Spirit Moves So Do We.” pp. 363-378. Joanne M. Braxton and Andree Nicola McLaughlin(eds). *Wild Women in the Whirlwind: Afro-American Culture and the Contemporary Literary Renaissance*.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Collins, Patricia Hill. 1991.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 Cummings, Lorine L. 1995. “A Womanist Response to the Afrocentric Idea: Jarena Lee, Womanist Preacher.” pp. 57-66. Cheryl J. Sanders(ed). *Living the Intersection: Womanism and Afrocentrism in The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 Douglas, Kelly Brown and Cheryl J Sanders. 1995. “Introduction,” pp. 9-17. Cheryl J. Sanders(ed). *Living the Intersection: Womanism and Afrocentrism in The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 Douglas, Kelly Brown. 1994. *The Black Christ*. New York: Orbis Books.
- _____. 1995. “To Reflect the Image of God: A Womanist Perspective on Right Relationship.” pp. 67-77. Cheryl J. Sanders(ed). *Living the Intersection: Womanism and Afrocentrism in The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 Mitchem, Stephanie Y. 2002. *Introducing Womanist Theology*. New York: Orbis Books.
- Tate, Claudia. 1984. *Black Women Writers at Work*. New York: Continuum.
- Walker, Alice. 1983.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Womanist Prose*. New York: Harcourt Brace.
- _____. 1989. *The Temple of My Familiar*. Florida: Harcourt Brace Javanovich.
- _____. 1992. *The Color Purple*. Great Britain: BPC Paperbacks.

32 우머니스트 신학과 앨리스 워커의 종교 및 공동체 의식

- Williams, Delores S. 1995. "Afrocentrism and Male-Female Relations in Church and Society." pp. 43-56. Cheryl J. Sanders(ed). *Living the Intersection: Womanism and Afrocentrism in The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 Willis, Gladys J. 2006. *Alice Walker's Influence on Womanist Theology: A Minority Response*. U.S.A: Xlibris Corporation.

Abstract

Alice Walker's Religion, Community Spirit
and Womanist Theology
– *The Color Purple* and *The Temple of My Familiar*

Hong, Seong-Ju
(Institute of Liberal Arts, Yong In University)

Black Theology as a part of liberation movements remained focused on the concerns of racist oppression, but they ignored the various forms of oppression within the Black community. Therefore, womanist theology emerged as a result of Black women developing consciousness of their multidimensional oppression and unique experience connected to being black and female in America. Womanist theologians adopted Alice Walker's term and definition of "womanist" in her book entitled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and used the term to describe themselves. In her writings, Alice Walker tried to understand Black women's lives and religion through their experience and history. Walker insisted on tracing African roots to nurture African American's self-esteem and cultural pride,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bonds. Furthermore, she extended the concept of community including all the people on the earth; consequently, she considered all people's wholeness in whatever culture they live in. Womanist theologians who fell under Alice Walker's influence regarded Black women's culture and history as their efforts to survive. Womanist theologians recognized Black women's experience of struggle against their oppression and promoted new theology based on Black women's unique religious experience. They basically searched for Black women's wholeness but also sought to eliminate anything that prevented Black people from being whole

and free. Finally womanist theologians challenged various alienating structures of oppression and pursued a world where all the people can live in relationships of mutuality. Thus, this article analyzes Walker's religion and her community spirit in *The Color Purple* and *The Temple of My Familiar* along with womanist theology.

Key words: community spirit, oppression, womanist theology, Alice Walker, wholeness, black women

■ 투 고 일 : 2019년 2월 21일
■ 최초심사일 : 2019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4월 5일